



주택 건설동향 확인 기술·제품 홍보 기회

26일 강원에코홈페어 개막
본보·강원건설단체聯 공동·

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·군이 후원하는 '강원 에코홈페어 2016-주택건설건축박람회'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.

강원 에코홈페어 주택건설건축박람회는 2010년 첫 개최 이후 6년간 매년 관람객 1만명 이상이 행사장을 찾으면서 지역 건설 및 중소기업계의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데다 주택·건설·건축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지역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박람회를 통해 전시되는 기업들의 제품은 다양하다. 대상 분야는 △가구 및 인테리어 △전원주택

및 정보 △건축자재 △조경·공공 시설 △욕실·주방 △냉난방 기기 △창호재 △조명·전기시설 △건설 장비 및 건설안전 보호구 △건설 신기술 등이다.

도내에서 생산되는 주택·건설·건축 및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,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도를 비롯해 18개 시·군의 주택·건설·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행사 기간 박람회장을 찾아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신공법·신기술 등 설치된 부스들을 둘러보고 자치단체에 적용할 대상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여 참가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.

하위윤기자

【 2016.10.04(월) 강원도민일보 】



오인철
대한건설협회
강원도회장
은 4일

낮 12시 속초시 한
음식점에서 지역회
원사 간담회를 주
재하고 애로사항을
청취한다.

【 2016.10.04(월) 건설경제 】

건협 강원도회,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간담회



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

대한건설협회 한다.

강원도회(회장
오인철·사진)는
4일 강원도 속초
에서 지역 회원

이번 간담회는 지역 회원사의
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
됐다. 지역 내 발주공사의 지역업
체 참여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
예정이다.